

2022년 12월 25일

금문교회 성탄주일/송년주일예배

GGPC Christmas Sunday/Year Sending Sunday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누가복음 Luke 1:46-55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모든 약속을 이루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평화를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순종합니다. 오늘 2022년 성탄주일과 송년주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거룩하신 은총을 영원히 찬양 드립니다. 온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또한 모든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받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증거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

Glory to God, Peace to People

누가복음 Luke 2:8-21

8.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And in the same region there were shepherds out in the field,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 by night.

9.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And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them,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around them, and they were filled with great fear.

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And the angel said to them, “Fear not! For behold,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11.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For unto you is born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r, who is Christ the Lord.

12.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And this will be a sign for you: you will find a baby wrapped in swaddling cloths and lying in a manger.”

13.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And suddenly there was with the angel of multitude of the heavenly host praising God and saying: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among those with whom he is pleased.

15.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And the angels went away from them into heaven, the shepherds said to one another, "Let us go over to Bethlehem and see this thing that has happened, which the Lord has made known to us."

16.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And they went with haste and found Mary and Joseph, and the baby lying in a manger.

17.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다 전하니

And when they saw it, they made known the saying that had been told them concerning the child.

18.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And all who heard it wondered at what the shepherds told them.

19.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But Mary treasured up all these things, pondering them in her heart.

20.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And the shepherds returned, glorifying and praising God for all they had heard and seen, as it had been told them.

21. 할례 할 팔 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러라.

And at the end of eight days, when he was circumcised, he was called Jesus, the name given by the angel before he was conceived in the womb.

할렐루야!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Matthew)과 누가복음(Luke) 두 복음서에 있습니다.

마태복음(Matthew)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렸습니다. 누가복음(Luke)은 들에 자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떠났습니다.

후파교회 이야기입니다. 설교자 헤롤드 존스의 아들 지미가 유락 지역에서 운전하다가 600 feet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헤롤드와 통화로 재확인했습니다. 거기는 수직절벽(straight down)입니다. 183미터에 해당하는데, 대략 43층 높이입니다. 여기서 차가 떨어졌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피가 지혈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눈에서 출혈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레카(Eureka) 병원으로 실려 갔다가, 헬리콥터로 새크라멘토로 이송되었습니다. UC Davis Hospital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시지요. 헤롤드 존스도 5년 전에 헬리콥터로 유레카에서 샌프란시스코 UCSF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헬리콥터로 아들을 새크라멘토에 보내고 헤롤드가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교회 공동카톡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미는 뼈가 부러진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의 출혈도 멈췄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에서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의 어머니 노린(Norin)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노린은 유락 지파사람으로서, 셰이커처치의 목회자였습니다. 셰이커처치는 원주민종교와 기독교가 결합된 혼합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해 온 지난 5년 동안 노린이 셰이커처치를 떠나 기독교 성도가 되었고, 이번에 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뉴턴(Newton)이 사과나무 아래서 발견한 것은 만유인력의 법칙(Universal Gravitation)입니다. 이것은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의 중력끌림을 기술하는 물리학 법칙입니다. The force with which all objects with mass attract each other.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었다면 지미는 떨어진 자리에서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완고하던 지미의 마음이 녹은 것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설득에 돌아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만져주셨던 것입니다. 셰이커처치 출신의 어머니 노린도 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노린의 마음을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자연과학의 법칙만 아니라, 인간사회의 관습이나 개인의 성품과 성향 등도 모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사람들이 변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온통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학자들은 악한 사회가 선한사회를 지배해 온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경제학에서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합니다. Bad money drives out good. 영국 경제학자 토마스 그레섬(Thomas Gresham, 1519-1579)의 이론입니다. 가령 회사에 특급 인재들의 채용이 줄어들면 회사 성과는 점차 떨어질 것이고, 특급인재의 지원은 자연스레 감소하고 결국 회사에는 2류 인재들만 남게 됩니다(wang.tistory.com).

이 세상을 보아도, 미국이나 러시아의 악한 지도자들이 오히려 인기가 높고, 권력이 그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푸틴 같은 악한 자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를 한 손에 휘두르고 있습니까? 한국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아프리카나 남미를 가면 악한 독재자들의 횡포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읊은 말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Why do the wicked lives, reach old age, and grow mighty in power?
욥기 Job 21:7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 악한 자들은 잠시 동안뿐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온 세상에 선포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완전하게 실시될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식입니까? 아담(Adama)과 하와(Eve) 때부터 구원자 메시아가 선포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And the Lord God made for Adam and for his wife garments of skins and clothed them.
창세기 Genesis 3:21

아브라함(Abraham)과 모세(Moses)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다윗(David)은 일평생 메시아 볼 날을 꿈꾸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You have set up a banner for those who fear you, that they may flee to it from the bow. That your beloved ones may be delivered, give salvation by your right hand and answer us!
시편 Psalm 60:4-5

이사야(Isaiah)와 예레미야(Jeremiah), 미가(Micah)와 말라기(Malachi)가 임박한 그 날을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아기 예수님(Jesus)께서 이 태어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Glory to God)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Peace to People)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악한 자의 세력을 무찌르시고 샬롬에 샬롬(shalom to shalom)을 더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For 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And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Of the increase of his government and of peace there will be no end. On the throne of David and over his kingdom, to establish it and to uphold it with justice and with righteousness from this time forth and forevermore. The zeal of the Lord of hosts will do this.

이사야 Isaiah 9:6-7

마태복음(Matthew)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출발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러 헤롯 왕에게 메시야께서 탄생하신 장소를 묻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미가서(Micah)를 찾고 거기서 베들레헴(Bethlehem)을 발견한 후, 박사들은 다시 길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누가복음(Luke)은 목자들이 천사의 계시를 받고 베들레헴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해 준 그 천사와 하늘의 천군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 대목에 집중합니다.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among those with whom he is pleased.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 주권자들이 죄와 사망으로써 다스리는 모든 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the Lord's Prayer) 그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 없더라.

The great city was split into three parts, and the cities of the nation fell, and God remembered Babylon the great, to make her drain the cup of the wine of the fury of his wrath. And every island fled away, and no mountains were to be found.

요한계시록 Revelation 16:19-20

하나님 앞에 세상의 권세는 먼지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And he made us a kingdom, priests to his God and Father, to him be glory and dominion forever and ever. Amen.

요한계시록 Revelation 1:6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로, 성도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돌 때까지 만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Then comes the end, when he delivers the kingdom to God the Father after destroying every rule and every authority and power. For he must reign until he has put all his enemies under his feet. The last enemy to be destroyed is death.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5:24-26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다니엘서(book of Daniel)에 기록된 바, 손 안 댄 돌처럼 날아와 세상의 우상권세를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교회를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 나라와 권세는 인간에게 어떤 일을 행합니까? 2022년 오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러시아(Russia)가 이웃나라 우크라이나(Ukraine)를 침공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수많은 도시가 파괴되었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2019년 말에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가 아직도 창궐합니다. 삶의 그늘진 곳에서 자살과 고독사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곳곳이 고요합니다. 이런 무심한 세상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태원(Itaewon)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압사 당했는데,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정치셈법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빛(light)이 있습니까? 세상살이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감동적인 소금역할(salt)을 누가 맡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서 누구도 “평화”를 찾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디오게네스(Diogenes of Sinope, 412/404-323 BC)는 대낮에 등불을 들고 무엇을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소.” 이런 세상에 어떤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례요한(John the Baptist)은 등불을 들고 정직한 사람을 찾아다닌 다닌 디오게네스와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은 그리스도를 만나 온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등불 아래 모였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He was a burning and shining lamp, and you were willing to rejoice for a while in his light. But the testimony that I have is greater than that of John. For the works that the Father has given me to accomplish, the very works that I am doing, bear witness about me that the Father has sent me.

요한복음 John 5:35-36

요한이 들고 다녔던 등불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마친 증거입니다. 요한은 마침내 예수님을 뵈었고,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The next day he saw Jesus coming toward him, and said,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요한복음 John 1:29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I myself did not know him, but the one who sent me to baptize with water said to me, “He on whom you see the Spirit descend and remain, this is he who baptizes with the Holy Spirit.” And I have seen and have borne witness that this is the Son of God.

요한복음 John 1:33-34

예수님께서서는 “등불”(the Lamp)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빛(the Light)이십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The true light, which gives light to everyone, was coming into the world.

요한복음 1:9

그 빛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Sermon on the Mount)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shall be called sons of God.

마태복음 Matthew 5:9

오늘 이 시대, 다 같이 죄인이며, 다 같이 세속화 된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Son of God)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안 계시다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But to all who did receive him,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who were born, not of blood nor of the will of flesh nor of the will of man, but of God.

요한복음 John 11:12-13

다시 들판에서 자던 목자(the Shepherds)들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에서 소외된 지역인 동방지역의 박사들처럼 목자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소외된 그룹입니다.

목자들이 천사들과 천군들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깊은 뜻을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Glory to God)입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인간에게 평화(Peace to People)입니다. 인간끼리 모여 만든 UN 같은 기구가 제공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Russia)가 상임이사국에 있지 않습니까? 독재정권 중국(China)도 거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참 평화는 십자가 위에 달려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 안에 있습니다.

참된 평화는 자기를 주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블랙홀”(Black Hole)처럼 극한 어둠의 길을 제공할 뿐입니다. 인간세상에서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려는 모든 움직임에서 갈등은 갈등을 낳고, 전쟁은 전쟁을 낳을 뿐입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참된 평화는 십자가(the Cross) 위에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어린양(the Lamb of God) 희생물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희생에 있습니다. 모두를 용서하신 참된 사랑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And Jesus said,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누가복음 Luke 23:34a-b

모르고 한 일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 사함의 평강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는 오늘 우리는 십자가 위에 달린신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를 증거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shall be called sons of God.

마태복음 Matthew 5:9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사명 안에서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The one conquers and who keeps my works until the end, to him I will
give authority over the nations. And he will rule them with a rod of iron,
as when earthen pots are broken in pieces, even as I myself have received
authority from my Father. And I will give him the morning star.
요한계시록 2:26-28

우리에게 새벽별, 곧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아멘.

더 이상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악한 자들이 세상을 주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최후의 심판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임하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목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일평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